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5화 : 탄생! 조선 총잡이			
<p>가지 말라는 말보다 더 무거운 족쇄가 이준의 발목을 붙드는 느낌이었다. 정녕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p> <p>그럼 이 고삐리의 몸에 든 이유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일까?</p> <p>하기야. 지금의 이준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도망 쳐봤자 굶어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었다. 그토록 무시하던 고구마와 감자를 구경조차 하지 못 할 지도 몰랐다.</p> <p>연희처럼 침을 잘 꿀거나, 처방을 써줄 능력도 없었다.</p> <p>나름의 계산기를 두드린 이준이 말했다.</p> <p>“도울지 말지는 제 동생의 안전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개는 동학군에 있어봤자 방해만 될 뿐입니다.”</p> <p>성가시다는 뜻이 물씬 풍겼지만 저편으로 비치는 애정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고작 며칠 부대꼈을 뿐인데도, 알맹이는 생판 남인 이준의 마음속에 조그만 꼬마가 스며든 게 분명했다.</p> <p>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강아지처럼 귀염뽀짝한 현종의 모습에 이준은 평소 개나 쥐버린 순수함을 저절로 만끽 중이었다.</p> <p>두령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p> <p>“우리도 아가들까지 집회에 세울 마음은 없어. 다만,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두는 것이여. 부모를 잃은 아가들을 거둬 줄 곳이 마땅찮으니 별 수 없지 않겠어? 그냥 두면 죽거나 노비로 팔려 다닐 테니까.”</p> <p>무겁게 내리깔린 목소리였다. 두령의 비죽배죽 빠져나온 머리칼과 두툼하게 자리 잡은 눈 밑 그들은 그간의 고단함이 얼마나 컸을지 여실히 보여주었다.</p> <p>비록 번쩍거리는 비단옷이나 하다못해 갑옷조차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공기를 압도하는 특유의 분위기가 났다.</p> <p>무거운 공기는 이준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윽고 그의 목울대가 성마르게 오르내렸다.</p> <p>“죽거나... 노비가 된다고요?”</p>			

이준은 세삼 놀랐다.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상황은 전쟁 말고는 없을 줄 알았다.

한데 지금 이 곳 조선의 상황은 어떤가. 여기와 전쟁터와 뭐가 다른지 이준은 쉬이 구분하기 힘들었다.

이들은 그저 먹고 살고 싶어서. 어린 자식, 배곯게 하지 않으려 나선 것뿐이었다. 그것마저 내란죄(內亂罪)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준은 잠시 간을 봤던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딜 가나 위정자들이 문제였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시위대라니. 폭동이라니...’

뺨속까지 경찰이 다 되었구나 싶어 이준은 픽 웃어버렸다. 어쩌면, 며칠 간 동학군이 보여준 정성과 애정에 감화라도 된 모양이지.

이준의 잇새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아...”

그의 눈빛이 이채를 띠기 시작했다. 흡사 투입작전을 방불케 하는 형형한 눈동자였다.

죽으면 죽는 거지! 이준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성격이었다면,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등 위험한 작전에 절대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군 복무시절 중동으로 파견까지 나갔다 온 이력까지 있었다.

이준은 약간 상기된 어조로 말했다.

“두령 형님, 저는 분명 동학군에 보탬이 될 겁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넌 이미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 믿고 안 믿고는 거론 할 가치도 없는 것이여.”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 한데 맞물렸다. 시선을 견주는 누구하나 흔들림이 없었다.

이준은 이 두령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은 아직 절반의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전 절대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평소라면 손발이 곱아들어 소름을 쓸어내릴 대사였다. 한데도 이상하게 이준의 눈빛

은 전에 없이 진지했다.

쓸데없이 진지하다며 특공대 동기들을 까 내리기 바쁘던 이준은 바야흐로, 그 대상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 고빠리의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현세로써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연희씨가 보고 있다, 연희씨가 보고 있다! 와 씨, 내가 생각해도 개 멋있네, 정이준.’

이준이 흐린 눈을 뜨자, ‘격동의 동학군, 소년영웅 현세’라는 드라마 초입부가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보았더라면 눈물 콧물, 있는 대로 즈을 짖을 텐데! 이것이 드라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로 안타까운 이준이었다.

‘내가 이리 관중이었나? 이놈 이거, 현세라는 놈, 사춘기였을지도 몰라.’

‘질풍노도’라는 호르몬 타을 하며 이준은 두령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예상대로 두령의 표정은 물론이고, 곁에 있던 연희의 표정도 무척이나 밝아졌다. 웃고 있으니 예쁜 얼굴이 더 예뻐 보였다. 에라, 미친놈아!

“나도 지는 싸움은 사양이여.”

봉 형은 싸움에 지기는커녕 한 큐에 때려죽일 것 같은 포스의 소유자였다.

“어... 충분히 그래 보이네요.”

잠시간의 정적이 흐르다, 연희의 웃음 꽃망울이 툭 터지면서 분위기는 상승세를 탔다. 이미 던져버린 웃가락이 아닌가. 모 아니면 도였다.

이준은 마른침을 삼키며 애써 연희의 시선을 피한 채 입을 열었다.

“두령 형님,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성함이?”

“어머, 현세야!”

사색이 된 연희가 이준의 옷소매를 당겼다. 아무리 머리를 크게 다쳤기로서니 두령의 이름까지 잊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약간의 혼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를 자식처럼 아껴준 두령이 아니었던가.

“연희야, 괜찮여.”

“하지만!”

두령이 고개를 내젓자, 연희는 쥐고 있던 현세의 옷소매를 슬며시 놓아주었다. 붉게 상기된 그녀의 두 뺨이 꼭 잘 익은 사과 같았다.

이준은 그런 연희의 얼굴을 뵈히 보다가 두령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사실 저는 제 성도 잊었어요.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죽을 지, 살지도 모르는 판에.”

열여덟 소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 그 괴리가 연희의 심사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이준은 꿈에서도 알지 못했다.

줄곧 미소만 띠고 있던 두령의 입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네 말이 맞다. 이름이 뭐시 중요 하겠냐. 그래도 물었으니 알려는 쥐야겠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전라 태인현 출신 봉준이여. 전봉준.”

“예, 전 봉 준 형님.”

어딘가 모르게 입에 짹짹 붙는 이름이었다. 본 듯도 하고 들은 듯도 했지만 쉬이 갈피가 잡히지 않는 이준이었다. 정신은 이준이되, 뇌는 현세의 것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스스로 전봉준을 ‘봉 형’이라 명명하며 꾸벅 인사를 했다.

“봉 형, 제게 조총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조총? 너 시방 조총이라 그랬냐?”

봉준은 감출 새도 없이 목젢이 다 드러나도록 소리 내어 웃었다. 장정 셋은 거뜬히 조질 것 같은 포스를 가진 남자가 웃고 있으니 이준은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뛰어난 피지컬과 특유의 거친 외모로 온갖 형사 역을 독식하다시피 하며 나아가서는 조폭까지 섭렵한 배우였던가? 그가 도로가에서 병아리를 줍던 장면은 이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마치, 지금 두령의 모습처럼!

‘가만, 이제 보니 웃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잖아? 봉 형... 듣던 대로 무서운 사람.’

이준은 싸움 상대방을 볼 때 딱 한 가지를 봤다. 덩치도 근육도 전부 아니었다. 이

준이 보는 것은 바로, 눈빛이었다.

승과 패는 단순히 기술이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이준은 그 눈빛 속에 녹아든 다른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볼 줄 알았다. 이를테면 얼마나 집념을 가졌는가. 혹은 이 승부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있는가와 같은 것들.

한데 웃고 있는 저 봉 형의 눈빛 속에 든 의지는 이제껏 이준이 봐 왔던 사람들과는 몹시 달라보였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달까?

봉준이 웃음을 그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마치 봄별을 한창 감상하다가 시베리아에 뚝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다.

“너, 조총을 다룰 줄 알아?”

입매는 웃고 있되, 비웃음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맹호를 연상시키는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봉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네 어매가 그 망할 조총에 죽었다며 이를 갈지 않았냐. 어찌 생각이 바뀌었냐?”

“이 놈 엄마가... 조총에 죽었다고요?”

이준은 작게 탄식했다. 저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껌데기의 엄마일 뿐인데도 기분이 찝찝하다 못해 더러웠다. 어쩐지 욕지기가 날 것 같았다.

대한민국 엄마는 이준을 건사하다 병으로 죽었고, 조선시대 엄마는 현세를 건사하자 총 맞아 죽었다. 그마저도 평행선을 달리다니, 알긋기도 하지.

다행이 이준은 열여덟 사춘기 소년이 아니었다. 마음 저편에서 부글대는 열기를 꺾 누른 그는 침착하게 물음표를 던졌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총까지 쏘니까? 아무리 나라가 후져도 그렇지. 법도 없어요, 이곳은?”

자신이 알던 현세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봉준은 생각에 잠겼다. 생김새도, 표정도, 하다못해 찡그리는 모습도 전과 같았다.

영혼만 쏙 빼놓고 보면 그랬다.

소년의 시간은 어느덧 사내로 접어든 것 같았다.

촉박한 것은 봉준 자신뿐인 모양이었다. 그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깨지더라도 한 번은 부딪히고 보자는 주의였다.

그런 봉준에게 현세의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었다.

봉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연희를 한 번 보고는 다시 현세에게로 시선을 주며 힘주어 말했다.

“네 말대로 나라가 후졌으니 법도 율도 다 엉망이 아니겠냐. 나는, 동학군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일깨우고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늘아래 같은 자식임을 꼭 알릴 것이여!”

사람의 의지에 한계란 없어 보였다. 그는 이미 시작 전부터 자신을 불사르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았다.

이준은 군에서도 크게 느껴보지 못했던 고양감이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름을 느꼈다.

‘같은 하늘아래 같은 자식 이라고?’

터무니없는, 뜬 구름 잡는 환상 같은 발언이 어찌 이리 사람 마음을 쥐고 흔드는지 모를 일이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도 모두가 평등하진 않았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했지만 그 ‘누구나’에 재력가나 정치인, 심지어 연예인은 불 포함이었다. 든든한 인맥과 돈으로는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바로 이준이 사는 세상이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이준이 특공대라는 루트를 밟은 계기도 할 줄 아는 것이 싸움 기술 뿐이어서였다.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을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 장래희망 칸에 적힌 수의사라는 글씨는 이미 바래진지 오래였다.

이준은 앞으로의 봉준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어째 그 곁에 자신도 함께 할 것 같다는 살벌한 기분은 덤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이준은 사망 플래그가 나부끼는 봉 형의 배에 한 발짝씩 내딛기 시작했다.

“봉 형,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시다면 제게 조총을 보여주세요.”